

OC 4지구 민주당 “씨니 박 공식 지지”

오렌지카운티(OC) 4지구 수퍼바이저 출마를 선언한 씨니 박(한국명 박영선) 부에나파크시장이 OC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보 1403호 ‘씨니 박, OC 4지구 수퍼바이저에 도전’).



▲ 씨니 박 시장 사진=buenapark.com

OC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8일 OC 4지구 수퍼바이저 예선 도전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했다. OC 4지구는 민주당 소속인 덕 채피 수퍼바이저가 현직으로 있으며, 여기에 박 시장이 도전하고 있다.

투표 결과 박 시장이 63%를 득표해 22%를 얻은 덕 채피 현 수퍼바이저를 따돌렸다. 이에 OC민주당은 당구에 따라 박 시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OC 4지구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 비율이 41%로 공화당 지지 비율 23%다 훨씬 높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후

보가 결선에 진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을 점쳐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OC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얻은 박 시장을 향해 각계의 지지 선언과 선거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주 주지사 후보였던 존 쉐전 주 재무장관, 데이브 민 가주 37지구 상원의원, 아다 바세뇨 OC민주당 위원장 등이 박 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OC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전 “난 2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세를 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더욱 열심히 일해 OC를 정치 1번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OC 4지구는 부에나파크, 풀러턴,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턴, 애너하임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 며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 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하는데 이를 개인별 위험도를 따져 완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시작돼 올해 1월 중에 정점에 도달한 후 최근 들어 환자 발생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자 단계적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다.

OC,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최종 후보

내년 가을에 열리는 ‘세계한상대회’가 오렌지카운티(O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 기사 본보 1407호 ‘OC상공회의소, 2023 세계한상대회 OC 유치 위해 끈걸음’).



평가위원회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첫째 개최인 만큼 해당 도시의 컨벤션센터,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 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4월 6~7일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과 연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된다.

정광일 재단 사업이사는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보여준 미주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하다.” 며

“해외 개최가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은 3일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후보지를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는 처음으로 한국 밖에서 열린다.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산하 뉴욕, 델러스, 애블랜드, 오렌지카운티 등 총 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유치를 신청했고, 재단은 지난달 현지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이날 1차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후보지 중 결선 후보지로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를 선정했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Dr. Seong Hoon Cho
DDS